

2027
중2-1
비상(박현숙)

2027 중2-1 비상(박현숙) | 2(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개념과 사용 의도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단다. 특히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르게 고쳤는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지시 표현이나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단골로 나오지.



피동 표현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능동 표현의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문장 성분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해. 서술어에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지다/-어지다’, 혹은 일부 명사에 ‘-되다’를 더해 만든단다. 이때 ‘맡겨지다’처럼 접미사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쓰는 이중 피동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반드시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해.



선생님, 저는 사람들이 왜 굳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해. 예를 들어 창문을 깨 학생이 “제가 창문을 깬어요” 대신 “창문이 깨졌어요”라고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부각하지 않는 효과가 있지. 또한 뉴스나 일기 예보에서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단다.



인용 표현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직접 인용, 내용만 가져오면 간접 인용이야.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해. 직접 인용을 쓰면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고, 간접 인용을 쓰면 내용이 매끄럽고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단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헛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간접 인용은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 주어야 한단다. 이 변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주의 깊게 보렴.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개념과 사용 의도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특히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르게 고쳤는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지시 표현이나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단골로 나오지.



피동 표현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능동 표현의 주어를 _____로, 목적어를 _____로 바꾸는 문장 성분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해. 서술어에는 _____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_____/ -_____’, 혹은 일부 _____에 ‘-_____’를 더해 만든다. 이때 ‘믿겨지다’처럼 접미사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쓰는 _____ 피동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반드시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해.



선생님, 저는 사람들이 왜 굳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피동 표현은 행위의 _____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_____을 회피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해. 예를 들어 창문을 깨 학생이 “제가 창문을 깬어요” 대신 “창문이 깨졌어요”라고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_____하지 않는 효과가 있지. 또한 뉴스나 일기 예보에서는 정보를 _____이고 _____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단다.



인용 표현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_____ 인용, 내용만 가져오면 _____ 인용이야. 직접 인용은 _____와 조사 ‘_____’를 사용하고, _____ 인용은 큰따옴표 없이 조사 ‘_____’를 사용해. 직접 인용을 쓰면 _____과 _____이 느껴지고, 간접 인용을 쓰면 내용이 _____효과가 있단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헛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간접 인용은 인용하는 사람의 ____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____ 표현, ____ 표현, ____ 표현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 주어야 한단다. 이 변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주의 깊게 보렴.



목차
수특수완 분석변형

2027
중2-1
비상(박현숙)

2027 중2-1 비상(박현숙) | 2(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① 피동 표현

같은 상황이어도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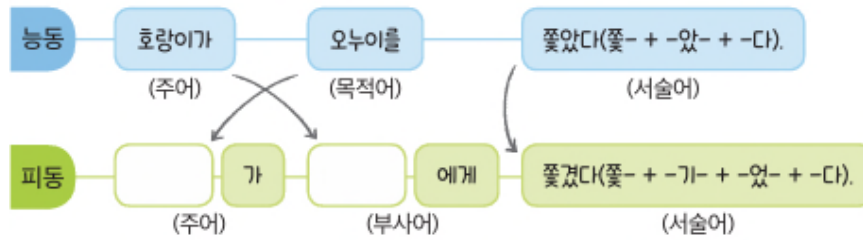
- 두 문장을 분석하고,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별해 보자.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다.	오누이가 (‘피동문의 주어이며, 능동문에서 동작을 당하던 대상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겼다 .(‘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만들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어: 호랑이가 주어가 행위를 [한다 / 당한다]. ‘한다’에 ○ 표시 [능동 / 피동] 표현 ‘능동’에 ○ 표시	주어: 오누이가 주어가 행위를 [한다 / 당한다]. ‘당한다’에 ○ 표시 [능동 / 피동] 표현 ‘피동’에 ○ 표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돼.**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의 주어는 목적어가 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서술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 -히- / -리- / -기-’를 붙이거나, 또는 ‘-아지다 / -어지다’를 붙이면 돼. 일부 명사에 ‘-되다’를 더해서 만들기도 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 두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해 보자.



(빈칸 순서대로) 오누이 / 호랑이

● 위의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만든 방법을 골라 보자.

동사 +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동사 + '-아지다/-어지다'

명사 + '-되다'


동사 +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1. [보기]와 같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보기]	사냥꾼이 사자를 잡았다.
	↓
	피동 접미사 '-히-' 사용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히-'를 통해 피동의 뜻을 더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사자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
	피동 접미사 '-기-' 사용
	↓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 안겼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
	↓
	'-어지다' 사용 ('서술어에 '-아지다/-어지다'를 붙여 만들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어졌다).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한 경우: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었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복구했다.
	↓
	<p>‘-되다’ 사용(‘명사 뒤에 ‘-되다’를 붙여 만들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무너진 건물)이 사람들에 의해 (복구되었다 / 복구됐다).</p>

2.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분석하고, 두 표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p>능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주어가 행위를 스스로 하는 문장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p>	<p>능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p>
<p>주어: 우리가 →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를 한 주체가 /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행위를 한 주체가’에 ○ 표시</p>	<p>주어: 윤서가 →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를 한 주체가 /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행위를 당한 대상이’에 ○ 표시</p>

3. 다음 대화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가)와 (나)의 상황에서 사용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 (가): 식당에서 손님이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고 종업원에게 말하는 상황

<p>피동 표현</p> <p>손님: 여기 식탁이 잘 안 닦였네요.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p>	→	<p>능동 표현</p> <p>손님: (종업원에게) 여기 식탁을 잘 안 닦았네요.</p>
--	---	--

· (나): 학생이 공을 차다가 창문을 깨뜨려서 선생님에게 말하는 상황

피동 표현	→	능동 표현
공을 찬 학생: 선생님, 창문이 깨졌어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을 찬 학생: 선생님, 제가 창문을 깬어요.

(2) (가)와 (나)의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	효과
(가)	행동의 (주체)인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함.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학생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음).		

4. 다음 매체 자료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뉴스 보도	○○ 기업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업체 측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및 효과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 • 효과: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신중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줌.
일기 예보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오전부터 5~40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5~10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자신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중2-1
비상(박현숙)

2027 중2-1 비상(박현숙) | 2(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① 피동 표현

같은 상황이어도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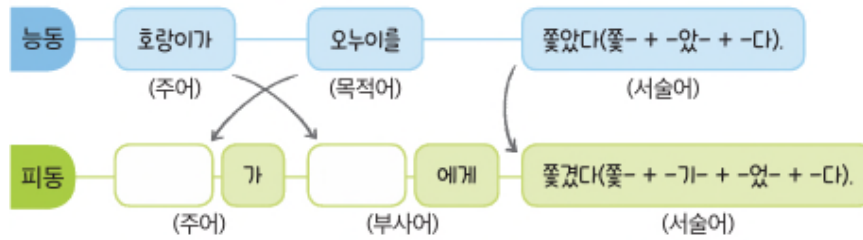
- 두 문장을 분석하고,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별해 보자.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다.	오누이가(‘피동문의 ___이며, 능동문에서 동작을 당하던 대상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겼다.(‘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_-’를 붙여 만들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어: ___가 주어가 행위를 [한다 / 당한다]. ‘___’에 ○ 표시	주어: ___가 주어가 행위를 [한다 / 당한다]. ‘___’에 ○ 표시
[능동 / 피동] 표현 ‘___’에 ○ 표시	[능동 / 피동] 표현 ‘___’에 ○ 표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돼.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의 주어는 목적어가 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서술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 -히- / -리- / -기-’를 붙이거나, 또는 ‘-아지다 / -어지다’를 붙이면 돼. 일부 명사에 ‘-되다’를 더해서 만들기도 해.]([]: 능동 표현을 ___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 두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해 보자.



(빈칸 순서대로) 오누이 / _____

● 위의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만든 방법을 골라 보자.

동사 +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동사 + '-아지다/-어지다'

명사 + '-되다'


동사 + 피동 _____ '-이-/-히-/-리-/-기-'

1. [보기]와 같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보기]	사냥꾼이 사자를 잡았다.
	↓
	피동 접미사 '-히-' 사용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히-'를 통해 피동의 뜻을 더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사자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
	피동 접미사 '-기-' 사용
	↓
	아이가 엄마에게 (_____ / 안겼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
	↓
	'-어지다' 사용 ('서술어에 '-아지다/-어지다'를 붙여 만들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_____ 가) 바람에 (꺾어졌다).
	피동 접미사 '-__-'를 활용한 경우: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였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복구했다.
	↓
	<p>‘-되다’ 사용(‘명사 뒤에 ‘-되다’를 붙여 만들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무너진 건물)이 사람들에 의해 (복구 _____ / 복구됐다) .</p>

2.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분석하고, 두 표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p>능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주어가 행위를 스스로 하는 문장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p>	<p>능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p>
<p>주어: _____가 →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를 한 주체가 /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행위를 _____ 주체가’에 O 표시</p>	<p>주어: _____가 →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를 한 주체가 /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행위를 _____ 대상이’에 O 표시</p>

3. 다음 대화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가)와 (나)의 상황에서 사용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 (가): 식당에서 손님이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고 종업원에게 말하는 상황

<p>피동 표현</p> <p>손님: 여기 식탁이 잘 안 닦였네요.(‘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p>	→	<p>능동 표현</p> <p>손님: (종업원에게) 여기 _____ 잘 안 _____.</p>
---	---	---

· (나): 학생이 공을 차다가 창문을 깨뜨려서 선생님에게 말하는 상황

피동 표현	→	능동 표현
공을 찬 학생: 선생님, 창문이 깨졌어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을 찬 학생: 선생님, _____ 창문을 _____.

(2) (가)와 (나)의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	효과
(가)	행동의 (_____)인 종업원의 실수를 (_____)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함.		행위의 _____ 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행위를 한 주체의 _____ 을 _____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학생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_____).		

4. 다음 매체 자료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뉴스 보도	○○ 기업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업체 측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및 효과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판단, _____, 예상의 _____ 를 밝히지 _____ 는 의도. • 효과: 어떤 문제에 대한 _____ 이나 _____, 예측되는 결과 등을 _____ 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_____ 을 전달할 때 _____ 인 느낌을 줌.
일기 예보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오전부터 5~40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5~10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자신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중2-1
비상(박현숙)

2027 중2-1 비상(박현숙) | 2(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능동과 피동의 개념

능동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 이나 행위를 하는 것.
피동	주어가 다른 대상 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

2.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히/-린/-기-'를 더함.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더함.
- 일부 **명사**에 '-되다'를 더함.

3. 피동 표현의 효과

-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음.
-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신중**하게 드러낼 수 있음.

TEST 1단계

1. 능동과 피동의 개념

능동	□어가 자기 힘으로 □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
피동	주어가 다른 □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

2.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 □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미사 ‘-□-/-히-/-□-/-기-’를 더함.
- 능동을 나타내는 □사에 ‘-□지다/-어지다’를 더함.
- 일부 □사에 ‘-□다’를 더함.

3. 피동 표현의 효과

- 행위의 □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임을 부각하지 □을 수 있음.
- 정보나 □실을 전달할 때 □관적인 □낌을 줄 수 있음.
- 어떤 문제에 대한 □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과 등을 □중하게 드러낼 수 있음.

TEST 2단계

1. 능동과 피동의 개념

능동	주어가 자기 힘으로 [] 이나 행위를 하는 것.
피동	주어가 다른 [] 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 것.

2.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 사 · '-[] -/-'히-'/'[] -/-'기-'를 더함. · 능동을 나타내는 [] 에 '-[] [] /-'어지다'를 더함. · 일부 [] 에 '-[] []'를 더함.

3. 피동 표현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 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 을 부각하지 [] 수 있음. · 정보나 [] 을 전달할 때 [] 인 [] 을 줄 수 있음. · 어떤 문제에 대한 [] 이나 의견, 예측되는 [] 등을 [] 하게 드러낼 수 있음.

TEST 3단계

1. 능동과 피동의 개념

능동	___가 자기 힘으로 ___이나 행위를 하는 것.
피동	주어가 다른 ___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___ 것.

2.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 ___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___ '___-/_-히-/_-/_-기-'를 더함.
- 능동을 나타내는 ___에 '___/_-어지다'를 더함.
- 일부 ___에 '___'를 더함.

3. 피동 표현의 효과

- 행위의 ___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___을 부각하지 ___ 수 있음.
- 정보나 ___을 전달할 때 ___인 ___을 줄 수 있음.
- 어떤 문제에 대한 ___이나 의견, 예측되는 ___등을 ___하게 드러낼 수 있음.

O / X 문제

【1~5】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단원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 (O / X)

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서술어는 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들 수 있다. (O / X)

3. ‘믿겨지다’와 같은 표현은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올바른 피동 표현이다.

..... (O / X)

4.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O / X)

5. 인용 시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끌어다 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 (O / X)

1. O 2. O 3. X 4. O 5. X

2027
중2-1
비상(박현숙)

2027 중2-1 비상(박현숙) | 2(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① 피동 표현

같은 상황이어도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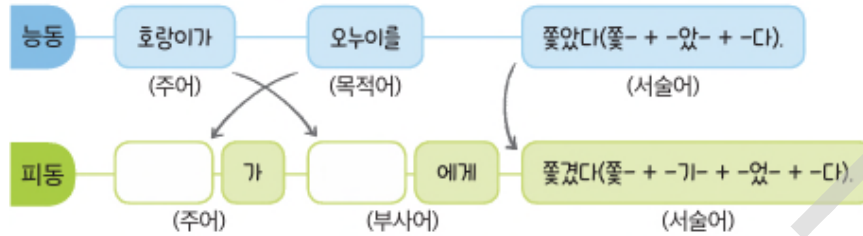
● 두 문장을 분석하고,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별해 보자.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다.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겼다.
주어:	주어:
주어가 행위를 [한다 / 당한다].	주어가 행위를 [한다 / 당한다].
[능동 / 피동] 표현	[능동 / 피동] 표현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돼. 서술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 -히- / -리- / -기-'를 붙이거나, 또는 '-아지다 / -어지다'를 붙이면 돼. 일부 명사에 '-되다'를 더해서 만들기도 해.

● 두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해 보자.




● 위의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만든 방법을 골라 보자.


동사 +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동사 + ‘-아지다/-어지다’


명사 + ‘-되다’

1. [보기]와 같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보기]						
	<table border="1"> <tr><td>사냥꾼이 사자를 잡았다.</td></tr> <tr><td>↓</td></tr> <tr><td>피동 접미사 ‘-히-’ 사용</td></tr> <tr><td>↓</td></tr> <tr><td>사자가 사냥꾼에게 잡혔다.</td></tr> </table>	사냥꾼이 사자를 잡았다.	↓	피동 접미사 ‘-히-’ 사용	↓	사자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사냥꾼이 사자를 잡았다.						
↓						
피동 접미사 ‘-히-’ 사용						
↓						
사자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table border="1"> <tr><td>엄마가 아이를 안았다.</td></tr> <tr><td>↓</td></tr> <tr><td>피동 접미사 ‘-기-’ 사용</td></tr> <tr><td>↓</td></tr> <tr><td>아이가 엄마에게 ().</td></tr> </table>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	피동 접미사 ‘-기-’ 사용	↓	아이가 엄마에게 ().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						
피동 접미사 ‘-기-’ 사용						
↓						
아이가 엄마에게 ().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
	↓
	‘-어지다’ 사용
	↓
	() 바람에 ().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복구했다.
	↓
	‘-되다’ 사용
	↓
	()이 사람들에게 의해 ().

2.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분석하고, 두 표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능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	능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
주어: →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를 한 주체가 /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주어: →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를 한 주체가 /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3. 다음 대화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가)와 (나)의 상황에서 사용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 (가): 식당에서 손님이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고 종업원에게 말하는 상황

피동 표현	→	능동 표현
손님: 여기 식탁이 잘 안 닦였네요.		

· (나): 학생이 공을 차다가 창문을 깨뜨려서 선생님에게 말하는 상황

피동 표현	→	능동 표현
학생: 선생님 창문이 깨졌어요.		

(2) (가)와 (나)의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효과
(가)	행동의 ()인 종업원의 실수를 () 않으 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함.	
(나)	학생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	

4. 다음 매체 자료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뉴스 보도	○○ 기업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비자에게 책 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업 체 측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 의 피해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및 효과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 일기 예보 는 오전부터 5~40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5~10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 효과:

핵심 정리

